

김영록 전남도지사, “세계 주목하는 전남으로 대도약” 선언

민선8기 1주년 성과 민생시책·세계와 경쟁할 탄탄한 기반 등 첨단전략산업·남해안프로젝트·농생명밸리 등 도정 방향 제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9일 “지난 1년간 전남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전남만의 세계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민선 8기 글로벌 도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 도정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역점시책을 설명했다.

민선 8기 1년 주요성과는 ▲전국 최초 난방비 지원 등 민생복지 시책 대폭 강화 ▲2023년 국고예산 8조 6천500억 원 역대 최대 확보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확정, 저탄소·디지털 산단 전환, 12조 원 규모의 첨단기업과의 투자협약 등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반 확충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조 원 확대 등 해양·생태·문화 관광중심지 도약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등 농수축산업의 고품질화·스마트화·수출산업화 ▲광주·경북, 남해안권 등 상생협력으로 지방시대 선도 등이다.

이어 향후 역점 시책으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건설을 위해 ▲최첨단 전략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도약 ▲세계 속의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 ▲전남 사회간접자본(SOC) 르네상스 시즌2 ▲농수축산업의 미래 인공지능(AI) 생명산업 육성 ▲정주여건 프로젝트 ▲국립 의과대학 유치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최첨단 전략산업의 경우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을 추진, 이차전지 등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미래산업 거점 육성,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유치를 한 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등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나선다.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도약을 위해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가속화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베스타스 터빈공장 유치를 통한 산업 다각화로 서남권 경제 발전을 이끈다는 목표다. 블루 수소생산단지과 그

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등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전용산단을 건설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IT) 기업 유치에 나선다.

세계 속의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에 앞장서고, 2023 전국(장애인)체전을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민감동체전으로 치르기로 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적극 힘을 보태 남해안 광역경제발전엔 큰 전환점을 마련키로 했다.

전남 사회간접자본 르네상스 시즌2로,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을 구축하고, 독일 아우토반 못지않은 광주~영암·목포 초고속도로와 목포~무안 전남형 트램을 도입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솔라시도는 세계적 스마트 시티로서 첨단·생태·에너지·관광레저도시로 육성하고, 무안국제공항에 광주 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9일 열린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역점 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군 제공

간·군공항 동시 이전 등을 통해 경제·관광의 판을 바꾸고 교통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기로 했다.

농수축산업 분야 미래 인공지능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 대전환을 이끌 인공지능 농생명밸리 및 축산밸리를 조성한다. 정주여건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친화형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구축 및 안심주택을 제

공,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의정협의체에 ‘전남 의과대학 설립’ 안건이 논의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위기와 기회의 연속인 대전환의 시대, 전남이 ‘기회와 희망의 땅, 미래의 땅’으로 더 높이 비상하도록 더 힘껏 뛰겠다”며 “

전남의 높은 비전과 끊임없는 도전, 변화의 대장정에 도민들께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제방 유실 위험지역인 곡성을 장선리 금곡교와 산사태 취약지역인 곡성을 신기리를 방문해 철저한 재해 예방을 지시했다. /서용운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6, 카앤드라이버 ‘2023 올해의 전기차’ 선정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가 발표한 ‘2023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다.

이로써 현대차는 지난 해 아이오닉 5에 이어 2년 연속 카앤드라이버의 ‘올해의 전기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의 ‘올해의 전기차’ 연속 수상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용 전기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카앤드라이버는 아이오닉 6를 포함해 아우디, BMW, 캐딜락,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14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3주간의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중 아이오닉 6는 13개 경쟁 차량을 제치고 최고의 전기차로 뽑혔다.

특히 경쟁 차종 중에는 각 사별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인 ▲아우디 Q4 e-트론(MEB) ▲캐딜락 리릭(BEV3)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EVA2) ▲루시드 에어 퓨어(LEAP) 등이 포함돼 E-GMP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평가는 카앤드라이버 에디터들을 통해 ▲차량 가치 ▲주행 테스트 ▲차량에 적용된 신기술 ▲주행의 즐

거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니 퀴로가(Tony Quiroga) 카앤드라이버 편집장은 “아이오닉 5에 이어 아이오닉 6의 수상은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아이오닉 6는 빠른 충전속도, 뛰어난 주행 성능 등 우수한 상품성과 기술력을 갖춘 차량”이라고 평했다.

호세 무뇨즈(Jose Munoz)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사장)은 “업계 최고의 공기역학, 충전속도, 혁신적인 기능을 갖춘 아이오닉 6를 완성하기까지 쏟은 노력을 인정받은 기쁘다”라며 “이번 수상은 현대자동차가 전동화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오닉 6는 지난 4월 월드카 어워드 주최측이 발표한 ‘2023 월드카 어워드’에서 ‘2023 세계 올해

의 자동차’를 비롯 ‘2023 세계 올해의 전기차(World Electric Vehicle of the Year)’, ‘2023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World Car Design of the Year)’에 선정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1월에는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me)의 ‘대형 패밀리카(Large Family Car)’ 부문에서 ‘최우수(Best in Class)’ 차량에 선정되며 뛰어난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문수 기자

호 소 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본인은 호남사학을 대표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문수입니다.

본인은 지난 3년여 동안 나름대로 조선대학교의 정상화와 대학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과 상식을 깨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조선대가 운동권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대학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없어 대통령님에게 대학을 정상화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이 학교법인 조선대 학교의 이사회를 정상화해서 대학과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5월25일에는 우려했던 대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설립자 측 이사 선임 못마저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잔탈해버리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설립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이사들로 채우며 운동권이 판을 치는 이사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회가 파행과 비정상적인 판을 치는 학교법인 사무처에서 사용하는 법인 카드 4장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 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상태로 이들은 법인의 비리를 감추는데 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조선대총장의 직인까지 도용하며 임명을 강행하고 교육부에서는 김 이사장을 비롯한 동종자 4명의 불법행위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 이사장은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수차례 기관경고, 주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금하고 있는 임원의 학사개입 금지 조항을 어기고 여전히 대학에 대한 학사개입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의 교수평의원회와 교수노동조합, 동문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제3기 정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은 그동안 김 이사장을 비롯한 운동권 비호를 받은 이사진들의 무수한 위법 행위를 바로 잡고자 2회에 걸쳐서 김 이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며 왜곡된 이사회를 바로잡기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족 상태에서 조선대이사회 불법행위를 저지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은 평생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법을 가장 잘알고 법을 누구보다도 더 지켜야 하는데도 사립학교법과 정관과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오히려 불법위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조롱하고 우롱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한 이들을 대통령님께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시급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관련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30

호소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 문 수